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흰 벽에는 —

어련히 해들 적마다 나뭇가지가 그림자 되어 떠오를 뿐이었다. 그러한 정밀*이 천년이나 머물렀다 한다.

단청은 연년(年年)이 빛을 잃어 두리기등에는 틈이 생기고, 벌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들었다. 그러나 험상궂어 가는 것이 서럽지 않았다.

기왓장마다 푸른 이끼가 앉고 세월은 소리없이 쌓였으나

① 문은 상기 닫혀진 채 멀리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밤이 있었다. 26

주춧돌 놓인 자리에 가을풀은 우거졌어도 봄이면 돌아오는 푸른 싹이 살고, 그리고 한 그루 진분홍 꽃이 피는 나무가 자란다.

유달리도 푸른 높은 하늘을 눈물과 함께 아득히 흘러간 별들이 종종 돌아오고 사납던 비바람이 견뎌낸 낡은 처마 끝에 찬란히 빛이 쏟아지는 새벽, 오래 닫혀진 문은 산천을 울리며 열리었다.

— 그럼던 것발이 눈뿌리에 사무치는 푸른 하늘이었다.

- 김종길, 「문」 -

* 정밀: 고요하고 편안함.

(나)

이렇게만 수양의 늘어진 ㉠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애먼 뿌리와

잠시 살 붙였다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이

혼연일체 믿어주지 않았다면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한 낮새 대리고 대리던 고집 센 비가 아니었으면

밤새 정분만 쌓던 도리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담을 넘는다는 게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 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고

담 밖을 가둬두는 24-③

저 급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타 넘어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수양의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24-②

그러니까 목련 가지라든가 감나무 가지라든가

줄장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든가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에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

* 도반: 함께 도를 닦는 벗.

(다)

나는 이홍에게 이렇게 말했다.

“④ 너는 있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있는 것은 병이

아니다. 너는 있지 않기를 바라느냐? 있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⑤ 그렇다면 있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있는 것이 도리어 병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근거로 할까?

있어도 좋을 것을 있지 못하는 데서 연유한다. 있어도 좋을

것을 있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 병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있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⑥ 그 말이 옳을까?

천하의 걱정거리란 어디에서 나오겠느냐? 있어도 좋을 것은

있지 못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은 있는 데서 나온다. 눈은

아름다움을 있지 못하고, 귀는 좋은 소리를 있지 못하며,

입은 맛난 음식을 있지 못하고, 사는 곳은 크고 화려한 집을

있지 못한다. 천한 신분인데도 큰 세력을 얻으려는 생각을

있지 못하고, 집안이 가난하건만 재물을 있지 못하며, 고귀한데도

교만한 것을 있지 못하고, 부유한데도 인색한 것을 있지

못한다. 의롭지 않은 물건을 취하려는 마음을 있지 못하고,

실상과 어긋난 이름을 얻으려는 마음을 있지 못한다.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있는 자가 되면, 어버이에게는

효심을 잊어버리고, 임금에게는 충성심을 잊어버리며, 부모를

잊고서는 슬픔을 잊어버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정성스러운

마음을 잊어버린다. 물건을 주고받을 때 의로움을 잊고, 나아가고

물러날 때 예의를 잊으며, 낮은 지위에 있으면서 제 분수를

잊고, 이해의 갈림길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잊는다.

④ 먼 것을 보고 가면 가까운 것을 잊고, 새것을 보고 나면

옛것을 잊는다. 입에서 말이 나올 때 가릴 줄을 잊고, 몸에서

행동이 나올 때 본받을 것을 잊는다. 내적인 것을 잊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게 되고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내적인 것을 더더욱 잊는다. 내적: ㉠ 외적: ㉡

⑥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잊지 못해 벌을 내리기도 하고,

남들이 잊지 못해 질시의 눈길을 보내며, 귀신이 잊지 못해

재앙을 내린다. 그러므로 있어도 좋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꿀 능력이 있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있어도 좋을 것은 잊고

자신의 있어서는 안 될 것은 잊지 않는다.”

- 유한준, 「있음을 논함」 -

이제부터 문제에 필요한 부분 반복독

2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명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낸다. 너 X
- ② (가)는 동일한 색채어를, (나)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시상을 전개한다. ~면 ~ 했을 것이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사라져 가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X 누가봐도 (나)는 아님
- ④ (나)는 사물을 관조함으로써, (다)는 세태를 관망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부각한다. ~ ~ 것이다 가 관조?
- ⑤ (가), (나), (다)는 모두, 대상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 과정을 연속적으로 제시한다. X ?

빠르게 읽어 읽음

결론: 흰 벽 + 시간의 흐름?

빠르게 읽음

결론: 가지가 담 넘을 때 혼자 X

대충 넘어감

읽기
있: 병 X
있 X: 병
이미 주장 나왔는데 뭐 더 읽음?
나어지는 강 사족
대충 읽으며
"동어반복이네" 하고 무시

* 손가락 걸기, 보기 문제

주장하는 글을 많이 써본 사람에게는 아주 쉬운 문제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에서 순환하는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은 인간 역사의 쇠락과 생성에 관여한다. 인간의 역사는 쇠락의 과정에서도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지며 자연의 힘을 탐색하거나 수용한다. 이를 통해 '문'은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실현하게 되고, 인간의 역사는 '깃발'로 상징되는 이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 ① '흰 벽'에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은, 천년을 쇠락해 온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 결과를 보여 주는군.
- ② '두리기둥'의 틈에 별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드는 것을 서럽지 않다고 한 것은, 쇠락해 가는 인간의 역사가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을 수용함을 드러내는군.
- ③ '기왓장마다' 이끼와 세월이 덮여 감에도 멀리 있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자연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에서 생성의 가능성을 찾는 모습이겠군.
- ④ '주춧돌 놓인 자리'에 봄이면 푸른 짝이 돋고 나무가 자라는 것은,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은 인간의 역사가 자연과 어우러져 생성의 힘을 수용하는 모습이겠군.
- ⑤ '달려진 문'이 별들이 돌아오고 낡은 처마 끝에 빛이 쏟아지는 새벽에 열리는 것은, 순환하는 자연 속에서 인간의 역사를 다시 생성할 가능성이 나타남을 보여 주는군.

2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 ① ㉠: 있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전개하기 위한 물음이다.
- ② ㉡: 있음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 던지는 물음이다. **근거 0**
- ③ ㉢: 있음에 대해 '나'가 제시한 가정적 상황이 틀리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한 물음이다. **주장과 반대 상황 → 반박**
- ④ ㉣: 잊지 못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의 관계를 대비적 표현을 통해 제시하며 있음에 대한 '나'의 생각을 드러내는 진술이다.
- ⑤ ㉤: 있음의 대상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열거하여 있음에 대한 '나'의 생각이 옳음을 강조하는 진술이다. **→ 당연한 소리**

26.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 ① ㉠은 주변 대상의 도움을 받으며 미래로 나아가고, ㉣은 주변 대상에게 도움을 주며 미래를 대비한다.
- ② ㉠은 자신의 자리를 지켜 내는, ㉣은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달려진 채 담 넘기**
- ③ ㉠은 주변과 단절된 상황을 극복하려 하고, ㉣은 외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려 한다.
- ④ ㉠과 ㉣은 외면의 변화를 통해 내면의 불안을 감추려 한다.
- ⑤ ㉠과 ㉣은 과거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나)와 (다)에는 주체가 대상을 바라보고 사유하여 얻은 인식이 드러난다. 이는 대상에서 발견한 새로운 의미를 보여 주는 방식이나, 대상의 속성에 주목하여 얻은 깨달음을 제시 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 ① (나)는 '수양'을 부분으로 나눠 살피고 부분들의 관계가 '혼연 일체'라는 것을 발견해 수양이 하나의 통합된 대상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0**
- ② (다)는 '잊어도 좋을 것'과 '잊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해 사유하여 타인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자세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는군. **0**
- ③ (다)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의 특성에 주목해 있음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이끈다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0**
- ④ (나)는 '담쟁이 줄기'의 속성에 주목해 담쟁이 줄기가 담을 넘을 수 있다는, (다)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는 데 주목해 '내적인 것'을 잊으면 '외적인 것'에 매몰된다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0**
- ⑤ (나)는 담의 의미를 사유하여 담이 '도박이자 도반'이라는, (다)는 '예의'나 '분수를 잊지 않아야 함'에 주목해 '잊지 않는 것이 빛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을 드러내는군. **→ 잊으면 안 되는 것**

(안잊기 병x) x ⇒ 안잊기=병, (x) 되는 것

1

2

3

3

* 쉬운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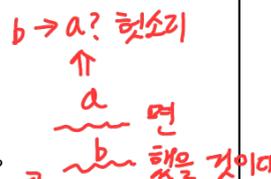
24.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상황과 '손을 터는' 행위가 '한없이' 떠는 가지의 마음으로 인한 것임을 드러낸다. **x**
- ② [B]에서는 '고집 센'과 '도리 없는'을 통해 가지가 '꼴드 꾸겨 못하게 만든 두 대상'의 성격을 부각한다. **답**
- ③ [B]에서는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는' 대상을 '신명 나는 일'에 연결하여 '정수리를 타 넘'는 행위의 의미를 드러낸다. **답 넘기**
- ④ [A]에서 '가지만의'와 '혼자서는'에 나타난 가지의 상황은, [B]에서 '담 밖을 가두어' [C]에서 '획'을 긋는 가지의 모습으로 이어진다. **담.**
- ⑤ [A]에서 '알았다면'과 [B]에서 '아니었으면'이 강조하는 대상들의 의미는, [C]에서 '목련'과 '감나무' 사이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이초에 언급된 부분이 (a), (b)로 다르죠?

대상들 ↓ 영향 가지

가지를 가진 나무들



사실, (다)는 잊: 병x, 잊x: 병으로 시작했지만 문제 풀면서 2,3문단을 보면 잊어도 되는 것과 잊으면 안 되는 것을 구분하고 있죠.